

# 정청래 “5·18 민주화운동 조롱 처벌법 추진하겠다”

###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정치권 잇단 규탄

#### 최고위서 밝혀…與후보 스타벅스 출입 자제도 광산을 후보들, 5·18 왜곡 처벌 강화 공약 잇따라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진행된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연일 강도 높은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0일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 데이’ 이벤트를 논란과 관련해 “독일처럼 5·18이나 다른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박시선 여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독일의 경우 홀로코스트를 미화·옹호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천안공노할 일이 벌어졌다”며 “5·18 마케팅을 한다면서 스타벅스에서 ‘탱크 데이’, ‘책상에 탱’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5·18 때만 되면 국민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갖고 있지 않나”라며 “탱크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진압하던 그 장면을 어떻게 커피 마케팅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후보자들은 스타벅스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매우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스타벅스 출입은 자제해주시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5·18 왜곡·모욕 행위 처벌 강화와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잇따라 공약으로 내세우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광산을 후보는 20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호 공약으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완수”와 “5·18 왜곡·폄하 방지법 개정”을 발표했다.

배 후보는 “이번 ‘5·18 탱크데이’ 사태는 5·18 모욕이 기업 마케팅과 돈벌이 수단으로 소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라며 “5·18 정신을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이 허위사실 유포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조롱과 모욕 행위 처벌에는 한계가 있다며, 모욕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 차원의 역사 왜곡이나 5·18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이른바 ‘역사왜곡 처벌법’ 추진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배 후보는 국민의힘을 향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안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며 “내란 세력 청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광산을 후보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스타벅스 이벤트를 강하게



선거 벽보 점검하는 선관위 직원들 6·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을 하루 앞둔 20일 오후 광주 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접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 후보들의 선거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비판했다.

임 후보는 “자유가 어떻게 얻어진 것인지 모르는 자들은 그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 실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와 예산, 홍보까지 이어진 조직 전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정의를 조롱하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게 해야 한다”며 스타벅스 불매운동 필요성이자 언급했다.

무소속 규빈기 후보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18 탱크데이는 광주시민과 5·18 정신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5·18 모욕 처벌법”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타벅스 불매운동도 제안하며 “5·18 정신과 국민을 모욕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국민의힘 계경에서 논란을 조롱하는 게시물이 올라온 점을 거론하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무산시킨 세력다운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는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은 실수가 아니다”며 “역사 앞에 오만한 기업 문화와 반복된 극우 코드 장사가 낳은 필연적 참사”라고 규정했다.

민 후보는 정운진 회장을 겨냥해 “‘별공’ 놀이와

일베식 조롱 문화를 과시해온 인물”이라며 “국민적 분노가 불매운동으로 번지자 대표와 담당 임원을 경질하는 꼬리 자르기에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신세계그룹의 마케팅 기획·승인·목인 과정 전면 공개와 스타벅스 미국 본사의 브랜드 라이선스 회수 검토 등 실질 조치를 요구했다.

민 후보는 “5·18을 조롱하고 광주를 모욕한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하겠다”며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추진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겠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민주당 서남권 후보들 “AI·RE100 산업경제공동체 구축”

### 목표·무안·영암·신안 공동성명 발표…“에너지 자산지소 실현” RE100 산단·AI 데이터센터·조선사업 등 연계 공동 전략 제안

더불어민주당 전남 서남권 4개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목표·무안·영암·신안을 하나의 산업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서남권 AI·RE100 산업 경제공동체’ 구상을 공동 제안했다.

강성휘 목표시장 후보, 김산 무안군수 후보, 우승희 영암군수 후보, 박우람 신안군수 후보는 20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전남광주 서남권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전략 거점”이라며 “경쟁을 넘어 연대와 협력으로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RE100 산단단지 조성 정책과 맞물려 서남권이 재생에너지 기반 미래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실이 지난해 RE100 산단단지 특별법 추진 방침을 밝힌 점을 언급하

며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서남권이 국가 산업전환의 핵심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후보들은 “재생에너지와 AI 데이터센터, RE100 산단단지, 조선·해양산업, 기업 유치 전략이 동시에 맞물리는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며 “개별 지자체 대응을 넘어 서남권 지방정부가 공동 전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 구상에는 목표의 항만·물류·정주 기능, 무안의 행정·교통 기반, 영암 대불국가산단의 조선·제조 인프라, 신안의 해상풍력 재생에너지 자원을 연계한 산업벨트 구축 방안이 담겼다.

특히 후보들은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 산업이 직접 활용하는 ‘에너지 자산지



소’ 구조를 핵심 경쟁력으로 제시했다. 신안 해상풍력과 서남권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 영암 제조산업 수요, 목표 항만 기능, 무안 교통·행정 인프라가 결합하면 AI 산업과 제조업 전환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AI 데이터센터는 단순히 전력만으로 운영되는 산업이 아니다”며 “재생에너지와 융수, 통신망, 산단단지, 인재, 정주 여건, 교통·물류 체계가 함께 구축돼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에 기업과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민형배 후보 선대위, 시민대변인단 ‘민픽’ 출범

### 양방향 소통 플랫폼도 가동… 시민주권 정부 실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사진)의 전남광주대통합선대위가 20일 ‘시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한 시민대변인단 ‘민픽’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민픽 대변인은 ‘민형배를 직접 픽(pick)한 대변인’이라는 뜻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됐다.

은·오프라인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민 후보의 비전을 전하는 양방향 소통의 주체로 활동하게 된다.

선대위는 이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상상로드맵’(https://www.citizenimagination.com/)을 본격 가동했다. 플랫폼은 시민정책 투표, 시민 의견 참여, 시민인재 및 특보단 신청 등 시민 중심의 참여 공간으로 구성되며,



후보의 공약을 공유하는 창구로도 함께 운영된다.

첫 모임에는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가 상상하는 전남광주’를 위한 약속·인증 퍼포먼스를 진행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참석자들은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주체임을 직접 선언하며 활동 의지를 다졌다.

선대위 관계자는 “시민대변인단과 상상로드맵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한 핵심 창구”며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전남광주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김철우 “보성 본예산 1조원 시대 열겠다”

### 청년 1000명 유치·농림해양수산 투자 4000억 확대 공약

김철우 더불어민주당 보성군수 후보(사진)가 민선 9기 균형 예산으로 본예산 1조원 달성 및 청년 1000명 유치, 농림해양수산 분야 투자 확대 등을 포함한 종합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20일 “민선 7·8기 성과를 기반으로 재정 규모를 키우고 산업·복지·정주 여건을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보성군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유일 4년 연속 1등급을 기록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군 개청 이래 처음으로 예산 8000억원 시대를 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 9기 핵심 목표로 본예산 1조원 달성을 제시하며 국·도비 확보와 투자사업 확대를 통한 재정 기반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간병비 지원제도 도입 △1취미 1취미 지원사업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40% 수준인 4000억원까지 확대하고, 1500억 원 규모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해 농민 소득 안정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정책으로는 ‘청년 1000명 유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폐교를 활용한 창업·문화공간 조성 및 체류형 스마트팜 관광단지 구축,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여겠다는 전략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

## 2026. 6. 3.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정보 카드뉴스

**한 사람이  
중복투표, 가능하다?**

**통합선거인명부,  
중복투표 차단!**

# 사전투표 # 부선거의의 # 팩트체크

---

**선거인명부란?**

선거권자가 해당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할 구·시·군의 장이 관할구역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작성**

※ 선거인명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하지 않음.

---

**팩트체크 1 "사전투표 참여 이력, 실시간 반영"**

- 전국 구·시·군의 장이 작성한 선거인명부를 전산시스템에 작성한 통합선거인명부 이용

- 전국 어디에서 투표하든 실시간으로 통합선거인명부에 연결되어 사전투표 참여 이력 즉시 반영

---

**팩트체크 2 "선거일투표소에서 중복 투표 불가"**

- 사전투표 종료 후, **사전투표 기록이 있는 선거인명부 실물을 출력하여 선거일에 사용**

- 본인확인 과정에서 이미 사전투표 완료한 선거인은 투표용지 수령 불가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